

# 취임 후 첫 휴가 보내는尹... ‘지지율·국정운영 구상’ 과제

처음으로 20% 후반대 지지율  
“일회일비 않고 묵묵히 할 일”  
향후 국정운영 기조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 이후 경제위기 극복, 인사문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그동안 뻣뻣한 일정을 소화해 와서 이번 휴가가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기회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호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휴가 도중 필요할 경우 민생 현장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으나 이날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깨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서 첫 휴가에 부담을 안고 보내게 됐다. 지난 2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지난 26~28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2%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됐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더해지며 지난 6월 중순 이후 꾸준히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직전 조사에서는 2주 연속으로 32%의 긍정 평가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포인트(p)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20%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나토정상회의 초청,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평가될 만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차 밝혔으나, 취임한 지 약 석 달 만에 50%대에서 20%대까지 폭락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드렸다”며 “이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저희도 그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다”며 “참모들도 모두 생각을 하고 (지지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당초 하려고 했던 것들, 더 잘하고자 했던 것들을 찾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묵묵히 해내다 보면 결국 국민들도 진정성이나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與 비대위 전환 급물살... 당헌당규 해석 등 ‘내홍’ 불씨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전격 사퇴  
비대위 전환 요건 놓고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사적 대화가 공개된 ‘내부총질’ 문자 파동 후폭풍 여파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31일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전격 사퇴하고, 당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사퇴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내홍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간 주고받은 대화가 공개되며 권 직무대행 체제가 약 2주 만에 흔들리게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퇴에 이어 전체 초선 의원 63명 중 과반인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연관장을 돌린 가운데 당초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권 직무대행도 이날 전격 사퇴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정부 출범 약 2개월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의 권위’와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비대위 전환 요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상태를 권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

위원들의 사퇴 등 최고위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최고위의 기능 상실에 대한 기준을 두고, 전체 최고위원 수의 과반과 최고위원 전원 사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전체 최고위원 수도 원래 정수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는 시각과 6·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러난 뒤인 8명으로 봐야 하는지 등 입장도 갈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자체가 이 대표의 징계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친이준석계와 빠른 비대위 전환을 원하는 친윤석열계 간의 정치적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권성동 직무대행은 31일 지도부 체제를 비대위로 조속히 전환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 요건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익 기자

## 이재명 저학력 발언 후폭풍 “발언 왜곡”

“제대로 보도 않는 언론 지적한 것”  
국민의힘 “국민 갈라치기 망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사진)의 ‘저학력·저소득층 발언’이 여당과 당권 주자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29일 오후 강원도 춘천으로 이동 중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 힘 지지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며 이를 ‘언론 환경’ 탓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고 이를 ‘국민 갈라치기 망언’이라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지와 맥락은 무시



한 채 발언 일부만 잘라내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축소,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취지는 슈퍼리치 감세 및 서민 민생 지원 축소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보수정당, 그리고 이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을 벌일 박용진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비전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진 정원오 구청장의 예를 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57% 얻어 모든 계층과 연령에 지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 구청장은 승리했다”며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때는 언론환경이 좋았다가 지금 갑자기 나빠졌다. 승리했을 때의 민주당은 결코 남 탓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는 민주당의 길은 명백하다. 부패, 비리와 무관한 떳떳한 민주당, 중산층과 서민이 우리의 역량을 유능하다고 평가해주는 그 길에 있다”며 “5년 전 문 대통령이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 정 구청장은 하는데, 이재명은 왜 못하는 것인가. 이재명이 가지 못한 그 길을 박용진이 걸어가겠다”고 자신했다.

/박태홍 기자

## 우상호 “안철수, 당 내홍 수습방안 내놔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31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내홍이 일어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습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안 의원에 윤석열 정부의 문제와 집권당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내셔야 한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던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일보〉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딸을 보기 위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당의 내홍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의 미국행에 일각에서는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안 의원을 거론하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안 의원의 행보”라며 “집권당 행보에 대해서 안 의원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수습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신다고 들었으나 ‘거리두기’용이라고 보도되던데, 지난 윤석열 정부 승리에 단일화로 기여하신 분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후회할 것이다’란 말씀하다가 단일화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집권당의 혼란에 대해서 안 의원이 나름 책임 있는 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